

산학협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체결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신진규)는 산업안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기술인력의 양성·확보를 위해 국립대인 한경대학교와 10월 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협회 신진규 회장, 한경대 김성진 총장, 그밖에 협회 임직원 및 한경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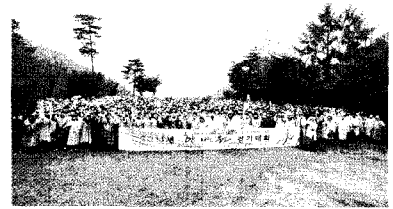
협회 신진규 회장은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양 기관이 공동노력을 펼쳐나가 미래 우수 안전인력을 양성하는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충남지회, 연구실 안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충남지회(지회장 황갑주)가 지난 10월 6일 ‘연구원 안전환경을 위한 워크숍’을 지회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20여곳의 연구기관 안전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또 연구단지 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도 이어졌다. 대전충남지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우수사례가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관내 연구실 안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안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10월 14일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진규 회장 및 임직원 720여명 모두가 충남 대둔산에 모여 한마음 대회 및 산재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협회 임직원들은 앞으로 산재예방 활동에 더욱 매진해, 민간 재해예방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울산지회, 안전모 착용 캠페인 실시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지회장 성기철) 및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이태희),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도원(원장 박수덕) 등이 최근 길천일반산업단지 내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대구 모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울산지회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전모 착용에 관심을 갖고 작업 시에도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어머니 안전전문강사 양성교육 개최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지회(지회장 장동주)에서 안전생활시민연합 어머니안전지도자 중앙회 주최로 ‘어머니 안전전문강사 양성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교육에는 경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류재용 사무총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어머니안전지도자회 중앙회 박영숙 회장,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신수태 사무처장 등 관련단체에서 30명이 참석했다.

세계적인 학계 전문가 대한민국에 모였다 APSS 2011 제주 서귀포에서 개최

Asia Pacific Symposium on Safety 2011

October 19 (Wed) - 21 (Fri), 2011 / Seogwipo KAL Hotel, Jeju, Korea

Organized by KOSOS The Korean Society of Safety(KOSOS)

Sponsored by Asia Pacific Association of Safety Engineering Societies (APASES)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KOSHA)



지난 10월 19일 제주도 서귀포 KAL 호텔에서 '아시아 태평양 안전 학술대회 APSS 2011'이 개최됐다. APSS는 아시아에서 안전분야를 전공하는 학자 및 전문가들이 2년마다 모여서 개최하는 학술대회다. 1999년 한국에서 처음 개최한 이래 일본, 대만, 중국에서 각각 개최한 바 있는 안전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대회다.

개막식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진규 회장과 엄현택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문기섭 산재예방정책관, 한국안전학회 정재희 회장 등의 주요 인사와 국제 안전관련 학계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진규 회장은 축사를 통해 "APSS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전 관련 이슈에 대한 과학자, 공학자, 현장 전문가들의 생각과 지식이 활발히 공유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 자리가 경제논리에 의해 다소 뒷전에 밀려나 있는 '안전'이 국가 별로 보다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울러 신 회장은 "안전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기술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각계각층에서 안전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꾸는 '안전의식 전환'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APSS가 상호 교류와 연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전분야의 제도개선 및 안전문화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타이완, 인도, 말레이시아, 몽고, 캐나다 등의 학계전문가들이 160편 이상의 안전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안전학회의 한 관계자는 "아시아 태평양 각국의 안전관련 최신 정보들을 교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